

## 사회복지의 이념과 현실적 타당성을 위한 담론적 연구

김 영화\*\*

I. 서론
II. 하버마스와 복지 이데올로기
1. 비판 이론과 하버마스
2.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복지 이데올로기
III. 푸코의 권력과 복지국가
1. 푸코와 구조주의
2. 권력과 국가 그리고 복지 이데올로기
IV. 결론

### I. 서론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보면 이데올로기가 이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영국의 사회민주주의 형성과 사회행정학과의 성립, 1940년대의 전후 복지국가 형성, 1970년대 이후의 신우파의 등장과 전개, 복지국가의 재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좌파적 복권 현상 등은 이데올로기가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나 신념 체계를 제공하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복지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의 가치나 신념 체계를 나타내지만 더 나아가 복지담론(discourse)을 형성하며, 복지 제도의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적 실천으로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샬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 연구 조성비 지원 지방대육성과제에 의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Marshall)의 시민권 개념이나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모델 등은 복지에 대한 가치 체계와 관념적 합의를 보여주며, 제도적 근거로서의 복지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생산, 복지 관계를 기능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서의 이데올로기는 특히 후기 맑스주의자들에게서 잘 나타나 있으며, 헤게모니적 본질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지 담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는 푸코(Foucault)와 하버마스(Harbermas)를 중심으로 어떻게 국가가 정당성을 유지하며 지식과 권력을 소유하는가에 대한 인식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sup>1)</sup>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요구와 열망을 가시적으로 표면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념적이고 가상적인 체계로 볼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가치, 신념, 규범, 기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복지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정책 결정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복지 이데올로기는 전후 서구 사회의 합의, 단결과 유대감에 기초하고 있으며, 복지 정책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저노믹스가 가지는 신우익적 이데올로기는 전후 복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현재의 복지연구와 미래를 전망해 보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데올로기와 복지와의 관계를 하버마스와 푸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거시 구조적인 시각으로 복지를 보아 왔던 시도에서 벗어나 담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복지와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결국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그 욕구가 표출되는 것이며, 그러한 인간의 욕구가 어떤 삶의 세계, 어떤 국가의 기제로서 수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국가의 정당성과 권위를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하버마스와 푸코를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 담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복지 이념과 현실을 진단해 보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서 쓰여지게 되었다.

1) Martin Hewitt, *Welfare, Ideology and Need ; Developing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Hemel Hempstead(Great Britain), 1992, pp.8-11에서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①사회적 신념(Social Ideals), ②제도화된 가치(Institutionalized Values), ③사회적 실천과 담론(Social Practice and Discourse)로 설명한다.

2) Ibid.

## II. 하버마스와 복지이데올로기

### 1. 비판 이론과 하버마스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론으로서 이들이 가졌던 최초의 관심은 1920년대 독일의 진정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있었다. 즉 그들의 관심은 당시 라살레를 비롯한 독일사회 민주적 개량주의와 마르크스·엔겔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혁명적 사회주의간의 분열과 대립 양상을 경험하면서 이론(Theory)과 실천(Practice)의 괴리 현상을 어떻게 메꾸는가에 있었다. 나치의 등장과 함께 이들은 유럽 각지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1950년 초까지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 아도르노(Th. Adorno), 프롬(E. Fromm), 외벤탐(L. Löwenthal), 마르쿠제(H. Marcuse), 벤야민(W. Benjamin) 등이 초기 멤버들에게 가세하여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1950년 초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복귀하게 되며 이때를 계기로 하여 비판이론의 제 2세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하버마스(J. Habermas), 슈미트(A. Schmidt), 오페(K. Offe) 등이 비판이론의 2세대에 속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하버마스와 오페는 신좌파운동(New Left Movement)의 이론적 지주가 된다. 1970년대에 오면서 이 학파는 조직상 분열을 일으키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고 역사적 유물론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역사를 통해 비판 이론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경우,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생산 관계가 아니라 '노동과 상호 행동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이론적 분석 틀을 형성하고 의사 소통 행위에 그 초점을 두게 된다. 이들 비판 이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sup>3)</sup>

첫째,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억압과 노예 상태로 부티의 해방을 목표로 하며, 둘째, 계급 지배를 지양하려는 관심 외에는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의 보편적 기준이 없다. 셋째, 인간의 행복과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경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결정론인 경제 주의는 배척한다. 넷째, 현존하는 모순에 대한 비판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생산 관계 등이 탐구 대상이 아니라 탐구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점에서 전통 마르크시즘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사회의 모순과 불행의 원천을 이성 개념의 변질로 보기 때문에 비판적 기능을 가진 이성의 회복을 통해 변증법적 사유, 이성의 부정성(否定性)의 기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서울:동녘, 1992, pp.187-188.

비판의 능력이 마비된 일차원적이고 도구적으로 변해 버린 이성이 더욱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형태를 취할수록 이성의 지배는 몰인격화, 익명화 되면서 더욱 보편화되어 간다. 그러면 비판 이론은 무엇을 비판하는가? 파시즘 및 권위주의와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비판이론에서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혁명의 집단적 주체가 일차원적 사고의 주체로 전락되고 물화(物化, Verdinglichung)되어 버림에 따라 이들은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무비판적 수용자로 변해 버렸다고 본다. 마르쿠제의 경우, 혁명의 주체가 지식인, 학생, 주변인으로 보았으나 하버마스는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며 인류 전체로 본다.

하버마스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2세대 학자들은 비판이론을 더욱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하버마스의 저서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에서 이러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1981년에 출간된 「의사소통 행위론(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에서 더욱 그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 2.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복지 이데올로기

하버마스는 인류역사의 합리화 과정을 노동(도구적 해방)과 상호작용(의사소통행위)의 두 가지 축으로 파악하려 한다.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나 1세대 비판이론이 노동만을 통한 실천적 과제 수행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성은 도구적 합리적으로 환원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본다.<sup>4)</sup> 인간은 우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차원적이고 도구적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며, 억압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이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통제(노동)와 의사소통의 두 가지 차원에서 합리화의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며<sup>5)</sup> 역사 구성에 대한 패러다임은 기술적 관심, 실천적 관심, 해방적 관심에 의해 구성되고 이러한 관심은 노동, 상호작용, 권력이라는 세 가지 사회 매체를 통해 발전한다고 본다.<sup>6)</sup>

의사소통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모델을 가져와 본다면, 정신분석학은 환자가 스스로의 왜곡된 의사소통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왜곡된 의사소통에서 이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만드는 정신분석학적 모델을

4) Ibid., P.282.

5) Ibid.

6) Ibid., p.283.

하버마스는 역사, 사회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비판적 사회과학의 모형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비판적 사회 이론을 형성한다.<sup>7)</sup> 그러므로 하버마스는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위해 노동-의사소통, 도구적 합리성-의사소통적 합리성, 체계-삶의 세계의 범주로 비판적 사회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의사소통 행위는 강요나 힘보다는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으로 동기화된 동의에 근거한다. 타당성을 가진 요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결속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주관적 관계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의사소통행위가 동의와 합의를 산출하려는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논증도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바로 사회 비판이론의 규범적 토대가 된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담화상황(Ideale Sprech Situation)”이 설정된다면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담론이 형성된다. 이상적인 담화 상황은 하나의 이념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인간의 언어구조속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지향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이상적 담화상황”에 근거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회현실과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규범적인 근거가 바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된다.<sup>8)</sup>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삶의 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의 점진적인 분리·침식과정으로 파악한다. 삶의 세계와 체계의 분리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삶의 세계를 점점 기술화시켜 나가며 체계의 메커니즘이 점차 삶의 세계를 침범하는 이른바 “삶의 세계의 통합”에 의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계에 의한 삶의 세계의 통합이 결국 “삶의 세계의 식민지화”로 귀결되며, 나아가서 현대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위기는 목적 합리적인 체계에 의한 식민지화에 있으며 이를 공공 영역의 재봉건화로 규정한다.<sup>9)</sup>

이러한 체계에 의한 현대사회의 사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장하고, 담론을 제도화하며, 이상적 담화 상황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속에 진리에 대한 타당성과 실천적 규범에 대한 타당성 요구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담론이 제도화된 사회를 민주 사회로 이해하기 때문이다.<sup>10)</sup>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의 핵심은 노동과 의사소통의 구분에 있으며 마르크스의 생산력과 생산

7) Ibid., pp.283-284.

8) Ibid., pp.292-293.

9) Ibid., p.294.

10) Ibid., p.295.

관계를 노동과 의사 소통으로 대치하려고 하였다. 그는 노동을 도구적 행위로 파악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맺은 통제적 기능, 비사회적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생산 관계를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의사 소통 행위로 환원시키고 해방 과정을 성찰과 인식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억압과 강제가 없는 사회적 관계, 이상적 담화상황 등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억압이 없는 인간 해방의 과정을 왜곡된 의사소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고 있으며, 의사소통 행위는 실천적 힘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의 사고에는 인식과 실천을 동일시하는 서구적 관념론이 전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해방은 자기 반성과 비판 의식에 의해 매개되는 담론으로 가능하며, 물화된 의식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인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복지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민적 공론, 공공영역(Affentlichkeit : Public realm)의 역할이다.<sup>11)</sup> 공정한 여론의 수렴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의 욕구가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성이 배제된 자율적인 방법으로 욕구가 표현될 것이며, 자유로운 시민적 여론의 수렴과 합의와 동의를 끌어내기가 용이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사회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기능과 역할은 국민들의 욕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의사 소통의 왜곡된 구조가 제거된 이상적 담화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운 담론 형성, 공론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이론과 복지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역시 비판 이론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권력과 이데올로기는 서로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 소통 구조를 생산하게 되고 이데올로기는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지배 논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가속시키게 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다. 전통적 이데올로기는 허위 의식으로서 특정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시키고 타계급의 해방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전문성과 객관성, 합법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저항을 덜 받고 보다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졌다. 또한 대중을 탈 정치화시키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사회 개혁을 위한 실천적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삶의 세계의 합리화 과정은 점차 삶의 세계를 종합시키는 힘과 활동력을 상실시키고 파편화된 의식으로 전락하게 하며 과학과 기술, 전문적 합리성에 굴복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되며 진실된 삶의 세계는 점점 식민지화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대비되는 사회적 힘으로서의 복지이데올로기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며, 비판적 인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

11) '공공영역'의 이념형적 모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평등이다.

산된 왜곡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이상적 담론 상황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진실된 사회적 관계가 성립되며, 강제가 없는 이상적 담론 상황이 이데올로기의 왜곡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보편적이며 규범적인 욕구가 이러한 합리성에 대항하여 의사소통적 담론에 기반을 둔 행위에 의해 유도된다면 일상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게 되는 보편적 복지의 입장은 이상적 담론 상황을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적 의지의 형성은 민주주의적 사회의 규범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규범적 정당성은 현대사법적 복지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고, 복지국가의 민주적 기반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동시에 복지국가의 위기와 딜레마가 된다. 복지국가는 국가 형태에 있어 가장 최근의 형태이며, 보편적 민주주의 권리의 가장 확대된 단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합리화되고 통제적인 법적 형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의 딜레마는 관료제화와 복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있으며, 자본주의와 결합된 신현실주의로 이 딜레마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본다.<sup>12)</sup>

하버마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일상생활과 노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질병, 실업, 퇴직, 노령, 빈곤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상 기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노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공적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러나 반면에 복지국가는 제도적 형태로서의 후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하고,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데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며 나아가 식민지화하는 생활 세계의 준거틀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sup>13)</sup> 그러므로 복지 자본주의 위기의 특성은 복지국가 내의 보상 기능들간의 갈등에서 생긴다. 그러나 하버마스과 오페는 복지국가가 선진 자본주의의 중요한 국가 형태이며 포기될 수 없는 형태로 보았다.<sup>14)</sup> 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는 유토피아를 소생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지국가는 시민의 눈에 정당한 것으로 비춰져야 하지만 반면에 복지국가가 가진 체계적 합리성의 규범과 생활 세계의 의사소통적 행위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된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국가는 특정한 욕구를 일반화, 보편화시키고 의사소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할 수 있는 영역도 제공한다.

12) Martin Hewitt, pp.105-117.

13) ①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II: Lifeworld and System*, trans. T. McCarthy, Cambridge: Polity Press, p.361.

② Ibid.

14) Martin Hewitt, pp.109.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하고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도 가졌으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의사소통적 가치 규범을 통한 보편성과 합의에 이르게 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딜레마와 위기는 이상적 의사 소통 행위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지에 대한 의사 소통의 윤리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논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원칙에 기초한 도덕성은 보편적인 규범을 인정하게 되며 이성적 논쟁과 비판적 검증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폭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규범이야말로 소득, 계급, 인종, 성에 관계없이 모두 공평하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에 있어 공공복지의 발전은 욕구와 관련된 진리, 정의의 요구에 있고,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담론적인 회복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지와 욕구의 만족을 위해 의사소통적 윤리가 중요한 관심으로 부각된다. 규범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진리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는 그에게 있어 이상적 담화 상황이며,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을 향한 보편적 의지 형성은 이성적 사회, 민주주의적 사회, 억압이 없는 사회를 위한 방향 제시에 필수적인 이상으로서 존재하게 된다.<sup>15)</sup>

### Ⅲ. 푸코의 권력과 복지국가

#### 1. 푸코와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와 대립하여 인간의 체험이나 정열, 시간성과 역사성, 의식과 자유, 정신적 의미 등은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간과 사회를 제도와 체계로서 설명한다. 구조주의는 실존적 인격 대신에 무인격성, 자유의 윤리성 대신에 필연성의 인식을, 정신적 가치 대신에 물질적 체계의 법칙을 주장한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삶 자체를 전체의 구도 속에서 인지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객관적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시간적으로 이미 지난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다른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문헌 속에 있는 언어적 진술(le discours):담론이나 비언어적 실제 행동(la pratique)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식 세계의 내면적 체험 세계를 부정하는 구조주의에서 남게되는 인식의 수단은, 언어로 표현된 진술이나 외양으로 나타나는 실제 행동 이외에는 신뢰할 수

15) Ibid., pp.114-117.



있는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6)</sup> 이러한 구조주의의 경향은 스탈리니즘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느낀 학자들이 이데올로기를 거짓 인식(*la connaissance fausse*)이며 몰인식(*la méconnaissance*)이라고 본 데 있다.

푸코의 사고는 구조가 없는 구조주의로 일컬어지고 있다.<sup>17)</sup> 이것의 의미로는 푸코의 철학을 구조주의의 일반화된 틀 속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뜻한다. 푸코 자신도 자기의 철학이 구조주의가 아님을 스스로 표방하고 있지만 푸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그를 구조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왜냐하면 푸코에게 있어서도 역시 다른 구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언어학의 사유 방법과 접근 방법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용하고 있는 고고학적인 역사 인식 방법이나 계보학적 방법도 구조주의적 방법에서 인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푸코의 관심은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을 구조주의적 언어이론에 근거하여 재구성해 보려는 라캉에게서도 나타난다. 그의 작품 「광기의 역사」(1961), 「임상의학의 탄생」(1963) 등에서 역사적인 연구방법을 택하였으며 「말과 사물」(1966)에서 인간 중심의 인식론적 역사를 벗어나 언어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지식의 고고학」에서 더욱 그의 고고학적 방법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그의 저서들에서 구조주의적 인식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sup>19)</sup> 또한 1975년 「감시와 처벌」, 1976년 「지식의 의지」 등에서 그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하나의 학문적 접근 방법론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을 「언어활동」(*langage*)과 「기호체계」(*le code*)의 상징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현대문명이나 원시문명, 과학, 예술, 신화적 세계, 사회적 삶 모두가 언어와 기호의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무의식 세계, 역사의 무의식적 세계 등도 논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조주의는 모두 「언어학」(*la linguistique*)을 학문적 방법으로 삼게 된다.<sup>20)</sup>

일반적으로 구조주의의 이해를 위해 구조언어학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언어와 말의 구별이다. 「언어」(*la langue*)와 「말」(*la parole*)이 합쳐서 「언어활동」(*le langage*)을 이루게 되는데 언어는 언어 활동의 사회적이고 제도화된 객관적 측면을 말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법칙이나 기초의 체계가 된다. 그러나 말은 언어라는 객관화된 틀 속에서 개인적 자유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개성을 가진 언어활동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말은 개인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언어는 모든 사람이 의사 전달을 위해 공유하는 하나의 체계가 된다. 그러므로 언어학에서는 말을 지배하는 언어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sup>21)</sup>

16) 김영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1989, pp.21-22.

17) Ibid., p.95.

18) 참고, Ibid., p.96-98.

19) 한상진·오생근 외, 「미셸푸코」, 서울: 한울출판사, 1994, pp.13-14.

20) Ibid., pp.61-62.

푸코(Michel Foucault)는 라캉(Jacques Lacan)과 함께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 구조주의의 특성하에 푸코의 권력과 국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 2. 권력과 국가 그리고 복지 이데올로기

푸코는 특정한 시대에 나타났던 처벌과 정신 병리적 현상, 성과 가족 등의 다양한 주제를 택하여 권력과 지식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 방법으로서 계보학적 연구 방법과 고고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역사를 서로 필연적인 매개에 의해 잇달아 일어나는 역사적 요소들의 연쇄 고리로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차이를 찾아낸다. 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심장한 차이를 찾아내며 현재를 과거의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차이를 통해 보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계보학은 역사를 탈중심화시키며 역사 속에서 불연속을 읽어 내는 것이다.”<sup>22)</sup> 그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그의 사유 체계를 전개하고 있는데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blish)」에 나타난 권력과 국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에 대한 사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지배의 수준에서 제시되는 권력의 예를 보여준다. 규율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규범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보다는 동질적이고 균등한 하나의 단위로 생산된다. 학교, 직장, 병원, 군대, 가정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은 ‘바람직한 형태’로 끊임없이 훈련되고 교정된다. 군사 훈련을 통해 올바른 보행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올바르게 펜을 쥐는 방법까지도 제시된다. 시험제도는 단일하고 통일된 개체들을 얼마나 성과 있게 배출해 내는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각 개인들은 화폐처럼 균일한 하나의 단위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힘을 조합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며 따라서 이러한 규격화와 개별화를 통해서 개개인들에게 권력이 행사될 수 있게 된다.<sup>23)</sup>

지배적 수준에서의 권력은 통치 테크닉이라는 구체적인 권력의 기술을 통하여 달성되는데, 푸코가 그의 저서를 통해 제시하는 고고학적·계보학적 분석은 통치 테크닉에 대한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치 테크닉의 특징은 그 대상이 신체(body)라는 데 있는데, 「감시와 처벌」에서는 ‘신체에 관한 정치학’<sup>24)</sup>, 「성의 역사」에서는 ‘생체-권력(bio-power)’<sup>25)</sup>이라는 용어로서 신체를

21) Ibid, pp.62.

22) 이정우, “감시와 처벌”, 「사회학의 명저 20」, 서울: 새길출판사, 1994, p.213.

23) 배익준, 「미셸푸코의 권력이론과 그 국가론적 함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 1994, p.26.

24) ①Michel Faucault, *Dicipline and Publish*, Vintage Books, 1979, p.25.

중심으로 행사되는 권력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성의 역사」에서 표현되는 해부-정치(anatomo-politics)와 생체-정치(bio-politics)는 모두 신체를 중심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체-권력(bio-power)이라 하며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의 기술, 다시 말하면 통치 테크닉의 대표적 유형이 된다. 이 두 종류의 통치 테크닉은 신체를 둘러싸고 작동하면서 신체를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후원을 보장하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해부-정치와 생체-정치는 모두 “삶에 대한 권력”을 나타내며, 삶의 가능성을 최대로 보장함으로써 행사되는 권력이 된다. 생체-권력의 통치 테크닉은 개인을 제한하고 처벌하며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을 보장하고 후원하며 보호하는 생산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sup>26)</sup> 신체의 조건, 신체적 능력의 최적화, 체력의 착취,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의 병행적 증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통제 체계로의 신체적 통합, 이러한 것들이 훈육을 특징짓는 과정, 곧 인체에 대한 해부-정치(anatomo-politics of the human body)에 의해 권력이 확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27)</sup>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보여지듯이 처벌은 훈련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부여되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수감자의 신체에 충분히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든다. 죽음으로 위협을 주는 것보다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처벌 대신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감옥, 병원, 군대와 같은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사무실, 공장 등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동일한 시험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며, 이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 탈락자, 실패자가 되어 버린다. 사무실과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세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통치 테크닉인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주의에 의해 시간과 공간 분할의 획일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효율성과 더불어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생체-정치는 불가침의 위엄과 힘을 가진 군주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아니라, 민중들을 마치 양떼처럼 돌보고 배려하는 목자의 권력(Pastoral Power)이라 부른다. 사목권력을 가진 목자는 양떼들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에게 개별적인 관심도 가지고 돌보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종류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아니라 “개별화된 권력(Individualizing Power)이라고 부른다.<sup>28)</sup> 목자는 이와 같이 양떼들 전체의 공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개별화된 개개의 이익을

②배익준, p. 28.

25) ①Micha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An Introduction*, Vintage Books, 1990, p.140.

②배익준, p. 28.

26) Facault, p.138.

27) Ibid., p.139.

28) Michel Foucault, "Politics and Reason", *Michel Foucault: Politics, Philosophy, Cultur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88, p.59.

위하여 헌신하게 되며, 양떼로서의 민중은 필요에 의해 목자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의존하며 복종하게 된다.

푸코의 권력 분석을 복지와 관련시켜 볼 때 특별히 통치 테크닉과의 연결이 중요하게 보인다. 개개인의 통치형태에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지배 형태를 유추해 냄으로써 사회 이론으로서의 유용함을 인식할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지배 형태는 곧 국가와 연결되며 그의 권력 이론은 곧 국가의 권력론, 통치 테크닉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어 현대의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감시와 처벌」에서 보여지는 감시와 훈육은 감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했던 대로, 병원, 교육기관, 군대, 사무실, 공장, 가정 등 사회 곳곳에서 규율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근대사회를 규율사회(Disciplinary Society)로 묘사하고 있다. 통치 테크닉이 발휘되는 이러한 영역들에는 사회적 강제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사회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생체-권력(bio-power)이 기능하고 있다거나 사목권력(pastoral power)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통치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의 통치성이란 바로 권력이 행사되는 특정한 방식이며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개별적이고도 사적인 부분에까지 배려됨으로써 행사되고 있는 '개별화하는 권력(Individualizing Power)'을 의미한다. 또한 푸코는 목자의 근대적 형태가 바로 국가라고 보며 집중화되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근대적 형태의 국가는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는 집중화되고 전체화(Totalizing)된 동시에 개별화된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sup>29)</sup>

따라서 사목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합에서 바로 현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사목권력에 해당되는 것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더 구체적으로 의료보장, 실업보험, 연금보험, 아동·청소년정책, 장애인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장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독점 영역을 확보하게 되고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가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기술같은 공적 권력을 개입하게 되며, 자산 조사나 기타 다른 경우를 통하여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 관여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 속으로 인간을 결속시키며 국가는 직접 국민 개개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며, 개인은 국가를 통해서 사회권(Social Right)을 얻게 되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들은 국가의 개별화된 사목

29) ①Michel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Ha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213.

②배익준, p.35.

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과 사목 권력은 현대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권력의 중요한 두 지주가 된다.

푸코의 국가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권력에 대한 관심이었고 지식과 개별화된 정보가 어떻게 권력을 형성하는가에 주된 초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권력을 통한 사회적 지배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생체, 해부의 정치권력과 사목권력은 집중화, 전체화, 개별화의 과정을 거쳐 국가에 의해 통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집중화된 권력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개별화된 권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와 개인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장 기구(Apparatuses of Security)가 된다.

푸코의 권력 개념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권력은 군주나 지배 엘리트로부터 하향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며 익명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조직속 어디에서라도 형성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감시와 교정기제, 훈육 기술, 지식을 통해 권력이 행사됨으로써, 억압적이고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권력은 점점 확대된다고 본 점이다. 따라서 근대국가는 한 마리 양떼를 지키는 사목과 같은 권력(Pastoral Power)으로 국민을 돌보게 되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복지국가는 다양한 후견적 권력의 복합체로서, 국가의 중심에서부터 전사회의 각 영역으로 그 권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 IV. 결 론

본 논문의 초점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하버마스와 푸코의 담론에서 복지 이데올로기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이론적 특성 속에서 복지와 복지국가의 정체성을 탐구해 보았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복지의 정체성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 변화와 그 시대적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통하여 복지의 본질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 온 복지국가의 신뢰가 1970년대를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 기능에 차질이 생기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재개되어 왔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에서, 개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시대로, 국민의 요구를 일괄적 제도로써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시대에서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선택이 가능한 시대로 변화되어 왔다.

영국의 초기 사회 행정가들이 표방하던 사회민주주의에서,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등장했던 신우파, 최근에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좌파적 복귀 현상 등의 일련의 복지이데올로기적 흐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 주는가?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지배하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를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응축된 사고의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복지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사회제도가 해결해 주지 못하던 사회문제나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연결 고리가 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개인적 욕구를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인간의 욕구는 복지 담론으로서 표현되며 복지담론은 복지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그 시대적 상황하에서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후기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식 방법과 접근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와 푸코를 중심으로 한 복지 담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후기 자본주의의 분열과 탈조직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버마스는 여러 가지 측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의사소통적 가치 규범을 통한 보편성과 합의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복지국가의 위기는 이상적 의사소통, 공공영역의 확보,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푸코는 근대 사회복지의 발달을 생체-권력(bio-power)이라는 새로운 권력 양식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동시에 후견적이고 사목적인 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정치권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갈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능 주의자들의 견해처럼 사회 통합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가? 결국 국가는 그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통합의 기능과 자본축적을 위한 통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페가 지적한 대로 복지국가는 체제의 한 현상으로서 되돌릴 수도 없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몰락하지 않는 불가역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sup>30)</sup> 그리고 복지국가의 계급적, 자본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국가의 형태 중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보다 더 나은 대안적 국가의 형태가 없었던 데서도 복지국가의 존재 지속적인 이유가 발견된다.<sup>31)</sup>

30) Martin Hewitt, pp.118-128.

31) 이병천, 박형준 편저,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III, 서울: 의암출판사, 1993, pp. 83-84, p.105.

## 참 고 문 헌

1. 라메쉬 미쉬라,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Society and Social Policy-Theories and Practice of Welfare), 남찬섭 옮김, 서울:한울, 1996.
2. 알렉스 켈리니코스, 『현대철학의 두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Marxism and Philosophy), 정남영 옮김, 서울:갈무리, 1996.
3.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레비-스트로쓰, 라캉, 푸코, 알튀세르에 관한 연구, 서울, 1996
4. 한상진·오생근외, 『미셸푸코론-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서울:한울, 1990.
5. 마크 포스터,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생산양식 대 정보양식-』, 서울:인간사랑, 1993.
6.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현대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서울:동녘, 1992.
7. 고영복 편저, 『사회정책 신론』, 서울:사회문화연구소, 1994.
8. 김진균·임현진·전성우, 『사회학의 명저』, 서울:새길, 1994.
9. 배익준, 『미셸푸코의 권력이론과 그 국가론적 함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10. 하버마스,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방문 7강의, 한상진 편, 서울:나남출판사, 1996.
11. 이진우 엮음,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서울:문예출판사, 1996.
12. 미셸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 역, 서울:나남출판사, 1996.
13. 미셸푸코, 『성의역사』, 제1권 앎의 의지, 제2권 쾌락의 활용, 제3권 자기에의 배려, 이규현 외 역, 서울:나남출판사, 1996.
14. 이병천·박형준 편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서울:의암출판사, 1992.
15. J. 라레인, 『현대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상진·심영희 옮김, 서울:한울, 1991.
16. I. Gough,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김연명·이승욱 옮김, 서울:한울, 1990.
17.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 현대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전개』, 서울:한울, 1994.
18.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9. 요아힘 히르쉬, 『대안없는 자본주의』 (Kapitalismus ohne Alternative?), 서울:한울, 1996.

20. Hewitt, Martin, *Welfare Ideology and Need; Developing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Harvest Wheatsheaf(Great Britein), 1992.
21.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1: Handlungsrationa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Fankfurt am Main, 1981.
22. Habermas, Jb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Verlag/ Frakfurt am Martin, 1981.
23. Foucault, Michel, *Politics, Philosophy, Culture*,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1988.
24. Dreyfus, Hubert/ Rainbow, Paul,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25.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Vintage Books, 1979.
26.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An Introduction*, Vintage Books, 1990.
27. Talor-Gooby, Peter, "Postmodernism and Social Policy: A Great Leap Backward?", *Journal of Social Policy*, Vol.23, No.3,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85-404.
28. Penna, Sue and O'brien, Matin, " Postmodernism and Social Policy: A Small step Forward?", *Journal of Social Policy*, Vol.25, No.1,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9- 61.
29. Sullivan, Michael, *Modern Social Policy*, Harvest Wheatsheaf/ New York and London, 1994.